



2026년 04월 28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4월 27일

SKT(017670)

BUY | TP 140,000원 | CP 98,000원

KT(030200)

BUY | TP 76,000원 | CP 61,100원

LGU+(032640)

BUY | TP 20,000원 | CP 16,430원

통신서비스 5월 투자 전략

결국 통신 서비스로까지 매수세가 확장될 듯 합니다

5월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5G SA 도입 기대감 높아지고 있어 유의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 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더불어 2026년 5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5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장/단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동시에 배당 증가/자사주 매입 규모 증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피지컬 AI 확산을 위해 5G SA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과거 세대 진화 당시 통신사 주가 흐름을 감안하면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Multiple 확장 국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DPS 상승/요금제 개편 기대감 증폭되고 있어 뚜렷한 투자 환경 개선 중

5월 통신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1) 2026년 1분기 통신 3사 실적 발표, 2) 1분기 DPS 발표 및 주주 환원 전망, 3) 미국 주파수 모의 경매 시작, 4) 피지컬 AI 활성화를 위한 국내 5G SA 도입 논의 등이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슈가 많지는 않지만 굵직한 재료들이 많아 통신사 주가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이슈는 많지 않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지만 이미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 실적 발표 이후엔 오히려 약재 해소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SKT 배당 정상화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호재가 많아지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5G SA 확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내 통신 3사 Multiple 확장, 배당수익률 밴드 하향 기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5G Advanced, AI 기지국, 네트워크 API, 자동화 기술, 5G SA 요금제 도입 방안 등이 이슈화되고 있어 기대를 갖게 한다.

5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모든 면에서 SKT가 가장 매력적

통신서비스 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하며 5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LGU+>KT 순으로 평가한다. 5월에도 SKT를 최선호 종목으로 제시하는데 1분기 실적 및 DPS 발표를 계기로 SKT 이익/배당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커질 것이며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무선 매출 비중이 높은 SKT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재료가 많아 장/단기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란 판단이다.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1. 5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제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로 유지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 장기 실적 및 배당 전망 밝고 아직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

통신서비스 업종에 대한 12개월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유지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이유는 1)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이익환원 확대 움직임이 지속될 전망이고, 2) 네트워크 진화 이벤트 및 시중 금리 추이를 감안하면 국내 통신 3사 배당수익률이 여전히 매력적인 상황이며, 3) 2026년도 연말엔 5G SA 전환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 출시가 예상되고, 4)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전망이며, 5) 본질적으로 2027년이나 통신사업 이익 성장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차세대 서비스 개시 기대감으로 2026년 Multiple 확장 국면이 미리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표 1.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의견

구분	투자의견 (5월)	투자의견 (4월)	등급 변화	사유
통신 업종	비중확대	비중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 장기 주주환원금액 증가 추세 유지될 것 DPS 성장 가능성 감안 시 통신 3사 배당수익률 높은 상황 5G SA 도입 이후 통신사 새로운 요금제 출시 전망 통신 규제 정책이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 이익 성장 기대감 높아지며 Multiple 확장 국면 진입 예상

주: 업종 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비중확대, 중립, 비중축소로 구분
자료: 하나증권

2) 5월 투자 매력도 ‘높음’ 제시, 이익 흐름과 5G SA 기대감이 주가 올릴 전망

5월 통신주 투자 매력도 높음으로 유지, 실적 발표 후에도 주가 상승 이어질 전망

2026년 5월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를 ‘높음’으로 유지한다. 5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오히려 장/단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며 동시에 배당 증가/자사주 매입 규모 증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전망이다.

2026년 분기별로 보면 1분기 통신 3사 영업이익의 합계는 KT와 SKT의 역기저 효과로 YoY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2분기 이후 SKT/LGU+ 위주로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3분기 이후엔 확연한 이익 증가 모습이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해 해킹 피해로 인한 낮은 기저 때문이다. 결국 분기 실적 추이로 보면 LGU+를 제외 시 1분기가 가장 좋지 않고 이후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 5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투자 심리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기에 장기 실적 기대감도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연말엔 새로운 5G 요금제가 선보일 수 있어 ARPU 상승에 따른 장기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최근 들어 5G SA 도입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피지컬 AI 활성화 때문이다. AI가 사실상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실패하면서 피지컬 AI를 새롭게 들고 왔는데 통신의 역할이 필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이유로 AI-RAN과 엣지 컴퓨팅 기술이 부각되었으며 AI 중심의 새로운 기지국 구축을 위하여 5G SA 도입을 거쳐 6G로 빨리 진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각국의 규제 기관은 5G 서비스 확장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에 나서고 있으며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지원 방안도 내놓고 있다. 곧 새로운 5G 요금제를 논의할 것이며 CAPEX 증대를 빌미로 요금 인상이 용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통신서비스 업종 PBR 상승, 배당수익률 밴드 하향 조정이 나타날 전망이다. 과거 통신서비스 업종은 새로운 네트워크의 출현과 요금제 개편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였다. 더불어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배당수익률 밴드는 요금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면서 급격히 낮아지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과거 흐름을 감안하면 결코 현재 국내 통신서비스 업체들의 Multiple 확장 국면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주목해야할 것 같다.

도표 2. 통신서비스 업종 투자 매력도

구분	투자 매력도 (5월)	투자 매력도 (4월)	매력도 변화	사유
통신 업종	4	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성 손익 제거 시 통신 3사 1분기 실적 양호할 전망 • SKT 1분기 DPS 조기 정상화, 연간 높은 DPS 성장 기대감 확산 중 • 피지컬 AI 경쟁 본격화, 규제기관/기업들 5G SA 도입 필요성 강조 • 글로벌 통신사 5G SA 조기 상용화 기대감 확산 중 • 미국 6월 신규 주파수 경매, 국내도 연내 논의 예상 • 올해 SKT 주가 큰 폭 상승, 하지만 Multiple 확장 기조 지속될 것 • 낮은 기저로 SKT/LGU+ 2026년 높은 이익 성장 전망 • 5G 신규 요금제 출시되면서 27년 APRU 상승 기대감 생길 것 • 성장 기대감 감안 시 통신사 기대배당수익률 여전히 매력적 • SKT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 소송 진행, 규제 공포 감소 예상 • 4차산업 패권 경쟁 이슈로 신정권 출범에도 규제 리스크 낮아 • 제 4 이통 주파수 할당 대가 일시납 추진, 사업자 선정 어려울 듯 • 제조사간 경쟁 미약, 국내 통신유통시장 과열 가능성 낮아 • 하반기 정책 금리 인하 예상, 통신사 배당수익률 매력적일 것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으로 5. 매우 높음, 4. 높음, 3. 보통, 2. 낮음, 1. 매우 낮음으로 평가
 자료: 하나증권

최근 3개월간 통신주 수익률은 KOSPI 수익률과 비슷, SKT의 상대적 선전 지속

3) 4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하회, 단 SKT 강세는 지속되는 양상

4월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KOSPI 수익률을 하회하였다. 반도체 업종으로의 매수세 풀림 현상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수익률로 보면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소폭 상회하였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통신장비주들이 폭등 양상을 지속하면서 국내 통신장비주와 더불어 SKT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결정적이었다. 더불어 1분기 DPS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SKT 조기 배당 정상화 기대감이 확산된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SKT의 상대적 강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LGU+ 주가가 지지부진했으며 KT는 상대적 주가 부진 양상을 나타냈다. 이제 1분기 실적이 공개되는 국면이다 보니 올해 실적 및 DPS 전망이 개별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T는 DPS 조기 정상화 및 연간 높은 이익 성장 전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KT는 부진한 1분기 실적과 배당 정체 우려가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도표 3. 2026년 4월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점검

(단위: %, %p)

업종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통신업종	16.3	30.6	(1.5)	0.8

주: 지수는 4/24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4. 2026년 4월 KOSPI 대비 종목별 수익률 점검

(단위: %, %p)

종목명	1개월 등락률	3개월 등락률	1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3개월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SK텔레콤	30.6	59.5	10.5	29.7
KT	4.1	13.8	(12.1)	(15.9)
LG유플러스	8.7	8.2	(8.4)	(21.6)

주: 주가는 4/24일 종가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5월에도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수익률 KOSPI 만큼은 될 전망

4) 5월 통신주 시장 수익률 수준 예상, 단기 실적 부진에도 주가 오를 전망

2026년 5월에도 국내 통신 서비스 업종 수익률은 최소 KOSPI 수준은 될 전망이다. KOSPI 상승이 5월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해도 SKT를 중심으로 통신주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2분기 이후 이익 증가 양상이 나타날 것이며 글로벌 통신 서비스/장비주 상승이 이어지고 SKT/LGU+의 경우엔 주주 환원 증대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 장/단기 투자 전망은 밝다는 판단이다.

5월 통신 서비스 업종 이슈는 그리 많지 않다. 1) 2026년 1분기 통신 3사 실적 발표, 2) 1분기 DPS 발표 및 주주 환원 전망, 3) 미국 주파수 모의 경매 시작, 4) 피지컬 AI 활성화를 위한 국내 5G SA 도입 논의 등이 주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슈가 많지는 않지만 굵직한 재료들이 많아 통신사 주가에 미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이슈는 많지 않다. 물론 LGU+를 제외한 SKT/KT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전망이며 KT 배당금 정체가 나타날 것이란 점은 다소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1분기 연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 실적 발표 이후엔 오히려 악재 해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 KT와 달리 SKT/LGU+의 경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주환원 증대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 낙관적인 주가 전망을 하게 한다.

무엇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5G SA 확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국내 통신 3사 Multiple 확장, 배당수익률 밴드 하향 기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피지컬 AI 성공을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AI에 특화된 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26년 MWC에서는 5G Advanced, AI 기지국, 네트워크 API, 자동화 기술, 5G SA 요금제 도입 방안 등이 이슈화되었다.

결국 전세계 규제 기관들은 피지컬 AI를 활성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지원 측면에서의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더불어 통신사들은 5G SA를 거쳐 6G를 도입하고 요금제 개편에 나서면서 새로운 성장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과거 새로운 요금제 출시는 통신사 서비스매출액 성장의 원천이었다. 또 새로운 요금제 출시는 배당 성장의 근간을 마련했다. 서서히 통신사 장기 실적 기대감 확산과 더불어 Multiple 확장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5월에도 통신 3사 주가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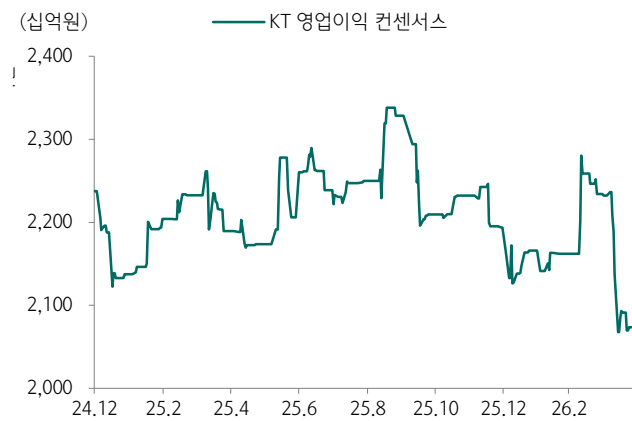
5월 1분기 실적 발표 전후에도
통신주 우상향 기초 유지될 전망

도표 5.5월 통신서비스 업종 이슈 점검

구분	내용
긍정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통신 서비스/장비 업종 상대적 강세 지속되는 양상 SKT/LGU+ 5G SA 연내 상용화 예정 언급, 하반기 이후 요금제 개편 논의 예상 SKT 1분기부터 DPS 정상화 시동, 투자 심리 회복 예상 LGU+ 영업비용 감소로 2026년 1분기 실적 우수하게 발표될 전망 기저 효과로 2026년 SKT/LGU+ 높은 이익 성장 달성 전망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 발표, 국내도 2026년 5G SA로 전환 예상 피지컬 AI 경쟁 심화, 국내에서도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 추진 본격화 전망 미국 AWS 3 주파수 대역 6월 경매 예정, 국내도 점차 네트워크 진화 기대감 높아질 전망 해킹 사태로 양자암호통신 부각, 차세대 서비스에 기본 탑재되며 킬러 서비스 역할 수행할 듯 제조사간 경쟁 어려워 단통법 폐지에도 국내 통신 유통 시장 크게 영향 받긴 어려운 상황 정책 금리 인하 및 시중 금리 하락으로 통신사 높은 배당수익률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규제 당국 추진에도 제 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가능성 낮음, 재무적 이슈 여전히 크기 때문
부정적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기저 효과로 LGU+를 제외하면 통신사 2026년 1분기 실적 부진 예상 KT 토탈 영업 TF로 배치된 2,300명 분업 복귀, 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예상 LGU+ 2026년 자사주 소각 규모 감소로 연간 주주이익환원 규모 올해 수준에 그칠 전망 2024년 이후 트랙픽 정체 양상 심각, 요금제 개편 없을 시 통신사 매출 증가 우려감 커질 것 통신사+금융권 합산 알뜰폰 M/S 60%로 제한 전망, MVNO 가입자 확대에 제동 걸릴 전망 5G 순증 가입자수 월 20만명대로 급감,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우려 커질 전망 AI 등 신사업 성과 부진, 유료화/요금제 도입 험난한 상황 국내 통신사 PBR 낮지만 해외 통신사 대비 ROE가 낮은 편
종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사 2026년 이익 증가/DPS 성장 흐름 전망, 5G SA 도입 기대감 평창 국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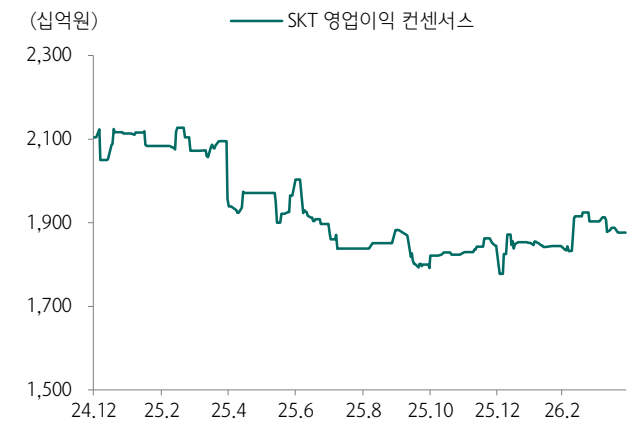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6. 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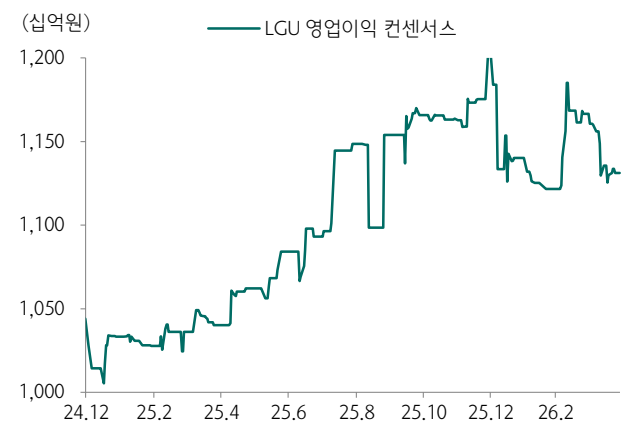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7. SKT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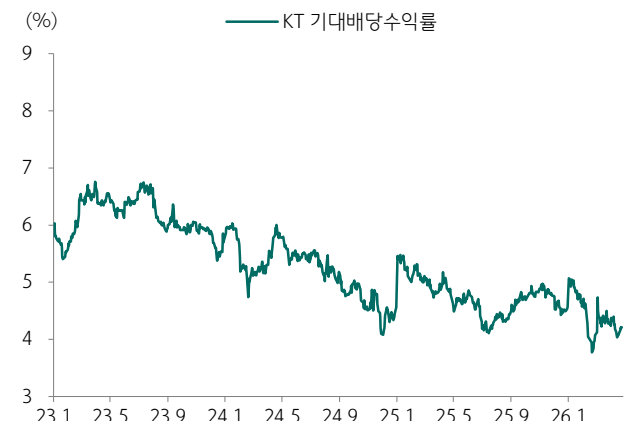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8. LG유플러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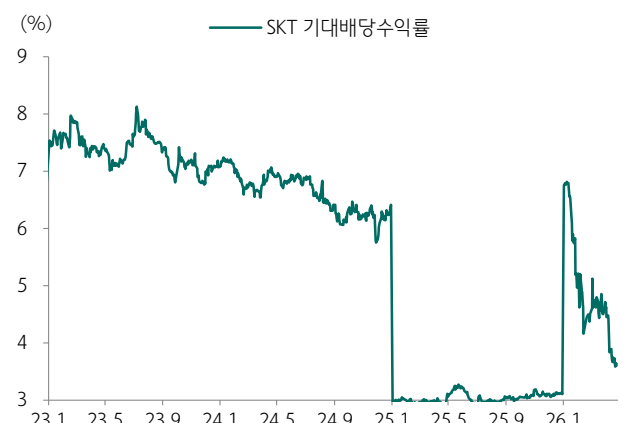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9. KT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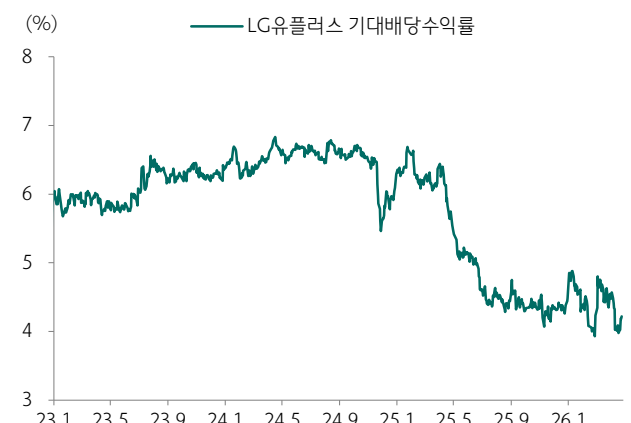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0. SK텔레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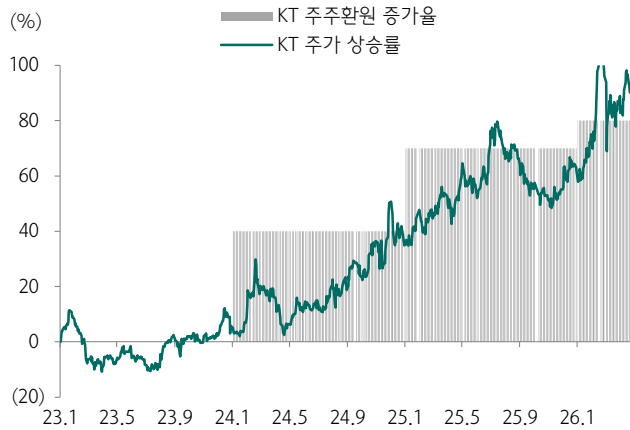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1. LG 유플러스 기대배당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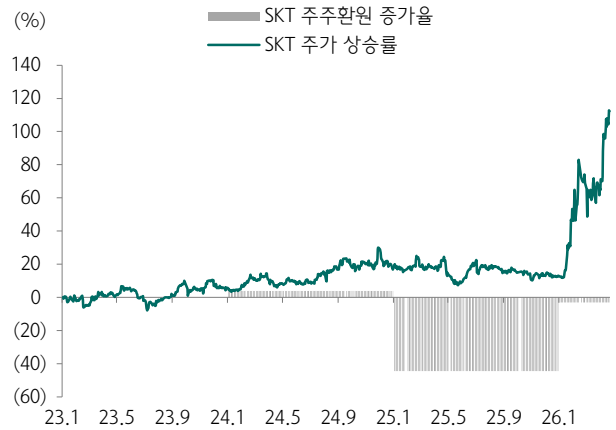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2. KT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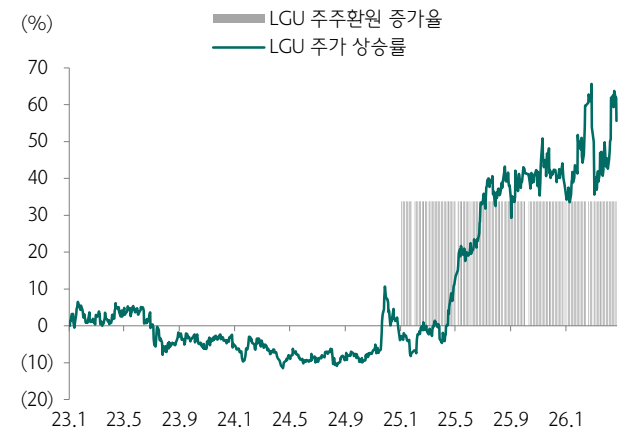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3. SK텔레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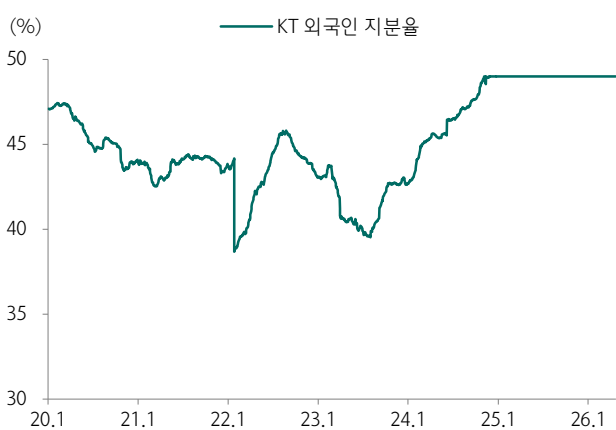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4. LG유플러스 3년전 대비 주주환원 vs 주가 상승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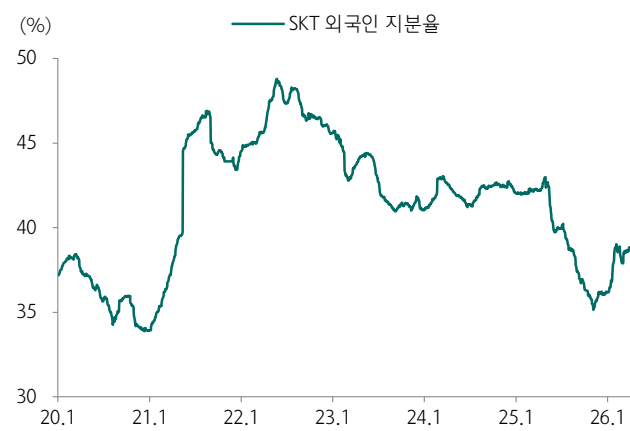
주: 2023.1=100 기준, 2026년 주주환원금액은 하나증권 추정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5. KT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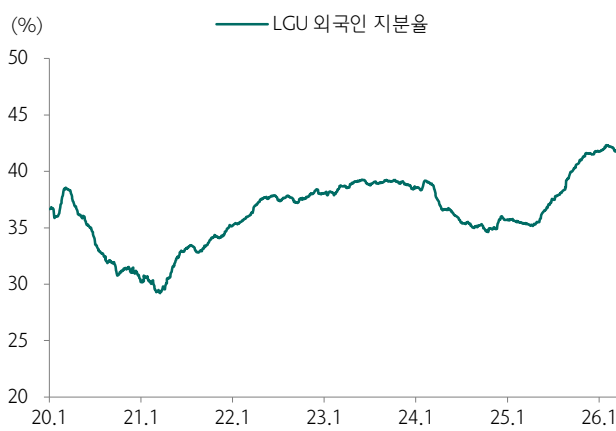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6. SK텔레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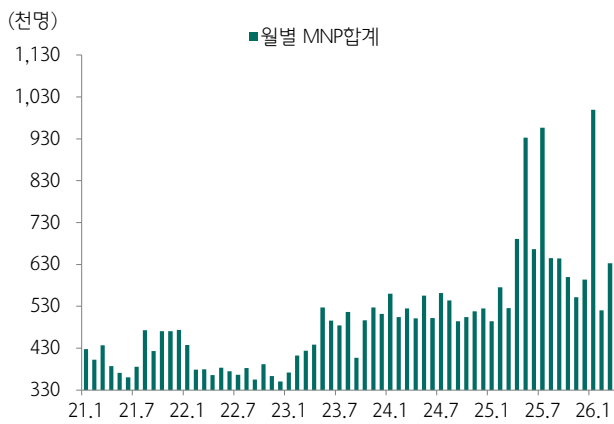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7. LG유플러스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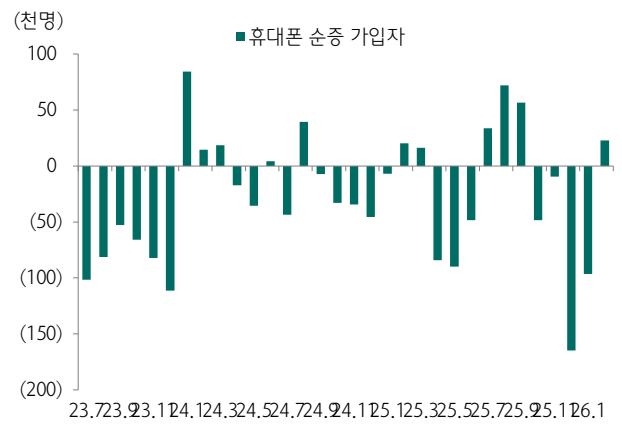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하나증권

도표 18. 월별 이동통신 MNP 합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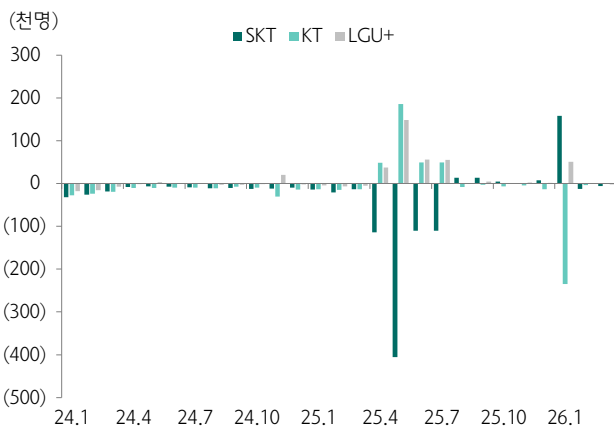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19. 휴대폰 순증가입자수 추이(통신 3사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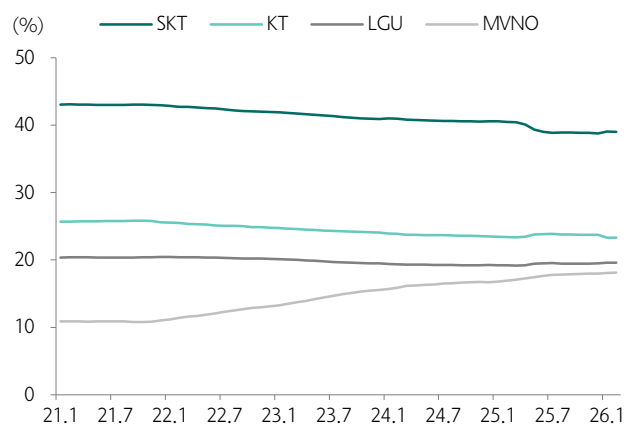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0. 사업자별 MNP 순증(순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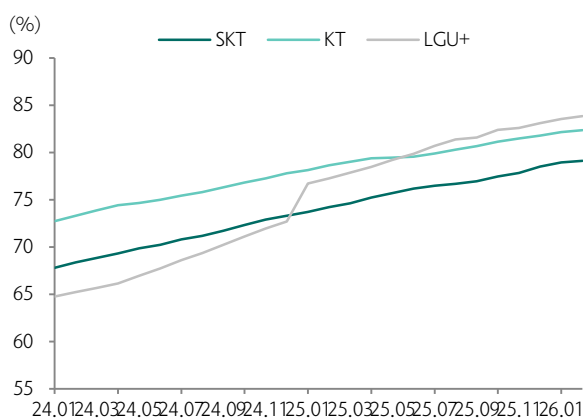
자료: KTOA, 하나증권

도표 21. 휴대폰 누적가입자수 M/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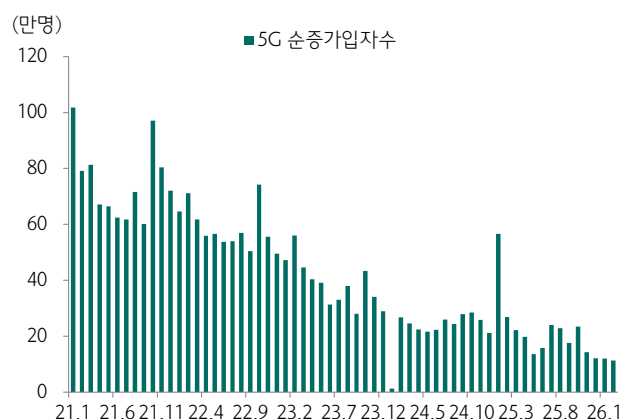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2. 통신 3사 5G 보급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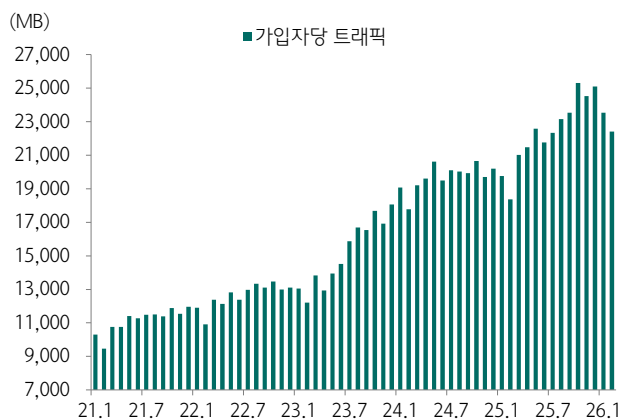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3. 5G 순증가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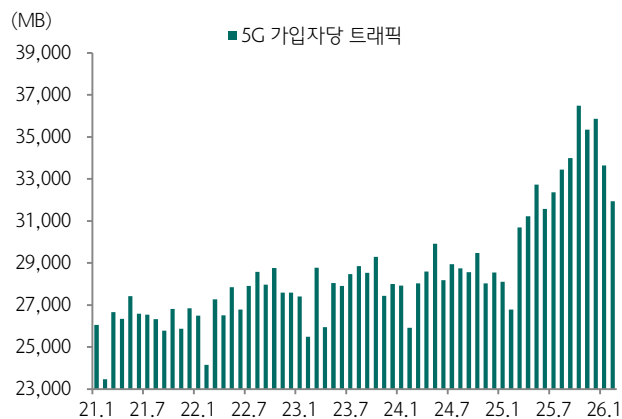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4. 국내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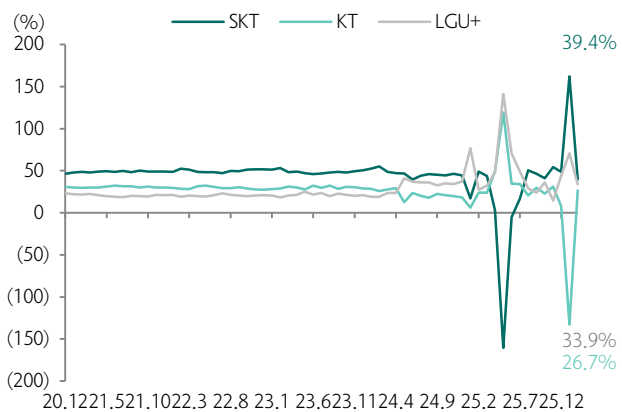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5. 5G 가입자당 트래픽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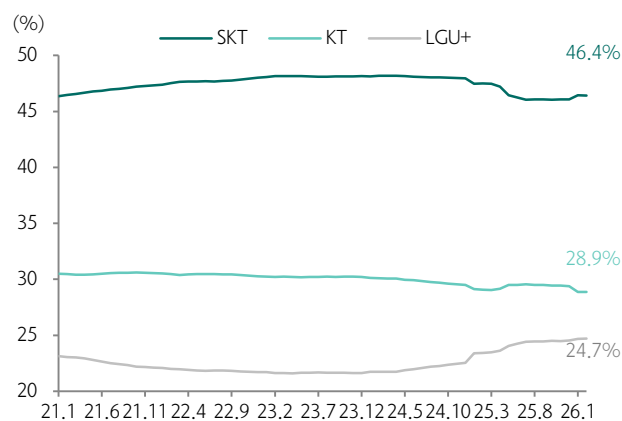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6. 5G 순증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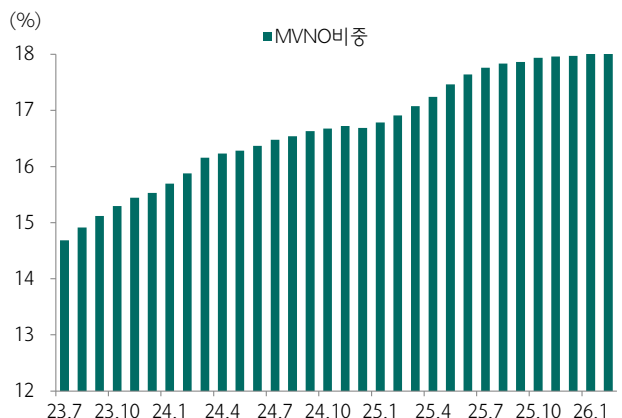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7. 5G 누적 가입자 M/S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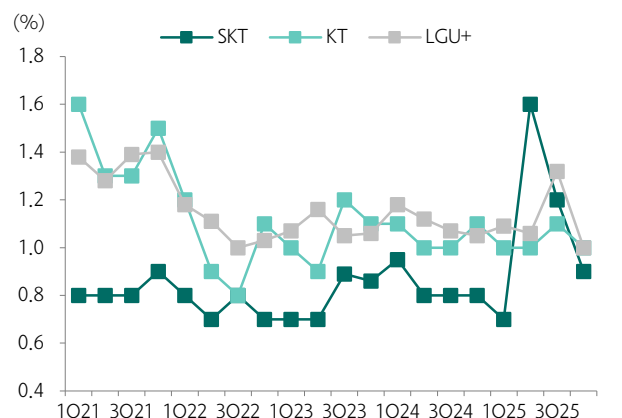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8. MVNO(재판매)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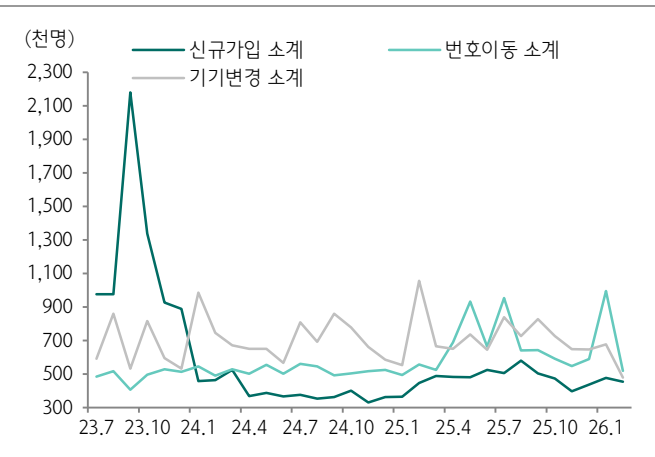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29. 통신 3사 분기별 해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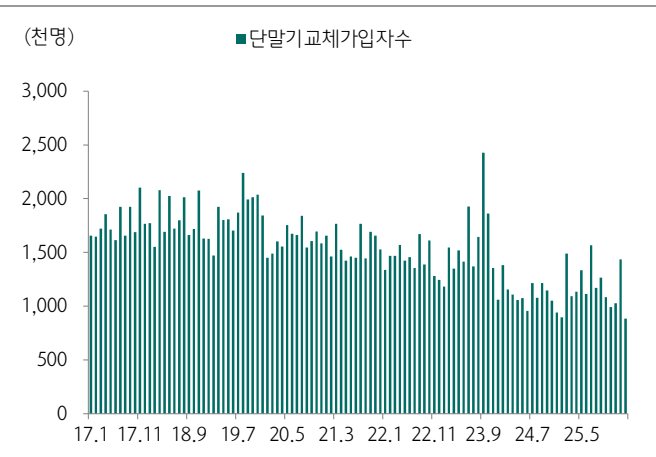
자료: 각 사, 하나증권

도표 30. 이동전화 가입 유형별 가입자수 추이 (재판매제외)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도표 31. 통신 3사 단말기교체가입자수(신규+기변+MNP) 합계 추이



자료: 과기부, 하나증권

2.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5월 투자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평가

1)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 2026년에는 이익 급성장 속에 DPS 정상화, AI 국책 사업자 선정 예상되기 때문

통신서비스업종 12개월 Top Pick을 SKT로 유지한다. 1) 장/단기 이익 흐름 및 성장률, 2) 장/단기 배당 또는 주주이익환원 성장률, 3) 기대 배당 수익률 및 주주환원 수익률, 4) 네트워크 경쟁력 및 차세대 서비스 도입에 따른 수혜 정도, 5) M/S 추이 및 매출액 성장률, 6) 마케팅비용/감가상각비/경비 등 비용 전망, 7) 정부 규제 영향, 8) 유통 경쟁력 및 유통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9) 신사업 및 M&A가 실적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10) 자회사 실적 및 IPO 추진 예상, 11)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러한 기준 하에 향후 12개월간 투자 매력도를 평가하면 통신 3사 중 SKT가 가장 투자 유망하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SKT를 12개월 장기 Top Pick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2025년과는 달리 2026년에는 통신 3사 중 가장 높은 이익 성장이 유력한 가운데 조기 DPS 정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5G 신규 요금제 출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장기 DPS 성장 기대감이 높아질 것이라 여전히 기대배당수익률은 매력적이란 판단이다. 장기적으로 2027년에는 비과세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올해 국책 AI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 주가 우상향 기조가 예상된다.

도표 32. 통신 3사 투자 환경상 긍정적/부정적 요인 점검

구분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S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적으로 해킹 관련 손실 2025년 전액 반영 낮은 기저로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전망 SK브로드밴드 실적 호전 본격화, 자회사 배당금 유입 지속될 전망 현금흐름 개선, 2026년도엔 DPS 급증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폰 가입자 감소 지속, M/S 하락 양상 5G 가입자 정체/이동전화매출액 정체 양상 5G SA로의 진화,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배당 성향 50% 상회, 이익 증가 나와야 장기 배당 성장 가능
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 통제로 본사 이익 성장 지속될 전망 부동산 분양 이익 발생으로 자회사 실적 호전 지속 전망 실질 자산가치대비 시가총액 적은 상황 낮은 PBR 개선 시키기 위한 정책 나올 수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조정효과 미흡, 2026년 이후 인건비 다시 증가 전환 예상 자사주 배당 전환 당분간 어려울 것 인당 효율성 낮음, 과도한 영업비용 존재 외국인 한도 소진, 수급상 불리함 존재 PBR 낮지만 3사 중 ROED도 가장 낮은 편
LG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익 성장률/배당 성향 수준으로 볼 때 장기 배당 증가 여력 존재 비용 이슈 종결, 이익 측면에서 양호한 흐름으로 전환 예상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 성장 기록할 전망 통신 3사 중 PER, PBR 가장 낮음, 상대 서비스 매출액 성장률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 B2B 매출 성장 폭 둔화 과거 대비 낮은 5G 순증 가입자 M/S 기록 중 주주 환원 규모로 보면 2026년 단기 정체 예상 기저 높아져 총 배당금 규모 단기 정체 예상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6년 이익 급증, DPS 조기 정상화 가능성 감안하여 SKT를 12개월 최선호주로 선정 	

자료: 하나증권

2) 5월 매력도는 SKT>LGU+>KT 순, 재료 많은 SKT를 최선호

5월 종목별 투자 매력도는 SKT>LGU+>KT 순으로 평가, DPS 정상화 기대감 커질 SKT를 Top Pick으로 제시

단기적으로 5월 통신서비스 업종 내 종목별 투자 매력도를 SKT>LGU+>KT 순으로 제시하고 12개월 Top Pick과 마찬가지로 5월 통신서비스 월간 Top Pick 역시 SKT로 제시한다. 1분기 실적 및 DPS 발표를 계기로 SKT 이익/배당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커질 것이며 5G SA 도입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무선 매출 비중이 높은 SKT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게 형성될 전망이다.

탐픽인 SKT는 장기 매력도도 높지만 특히 5월 단기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판단이다.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YoY 감소이긴 하지만 최근 서비스매출액, 영업비용 흐름이 양호해 내용상 우수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1분기 DPS 역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1분기에 당장 2024년 수준인 800~900원 수준의 DPS를 발표할 전망이라 2026년 연간 3,600원에 달하는 DPS 달성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3사 중 AI RAN 구축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다. 5G SA 확산 수혜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불어 상반기내 국책 AI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양자암호통신 분야 성과도 가장 우수해 피지컬 AI 대표 수혜주로 거듭날 전망이다. 통신서비스 업체 치곤 재료가 많고 기대 배당수익률이 우수하며 공급도 양호할 전망이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LGU+ 역시 5월 주가 전망은 낙관적이다. 무엇보다 국내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우수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전망이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가운데 올해 주주환원 증대 기대감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및 B2B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비용 감축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 내용면에서도 우수한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2분기 자사주 매입/소각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많아질 것인데 전년도 800억원에서 올해는 900~1,000원으로 증액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장기 주주환원 증대 기대감이 확장될 전망이다.

반면 KT의 경우엔 당분간 특별한 호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쟁사 주가에 후행적으로 연동하는 부진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당분간 자사주의 배당 전환이 쉽지 않은 가운데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장기 주주이익환원 정체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 외국인 한도 소진으로 자사주 소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수급적으로 불리한 흐름이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 인건비 감소 기대감도 낮아질 것이라 장기 실적 개선 기대감 저하가 예상된다. 자사주 매입이 진행 중이지만 작년과는 달리 주가 상승으로 전체 매입 수량이 크지 않아 수급 개선에 큰 힘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도표 33.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 의견

구분	투자이견	목표가 (12개월)	사유
SKT	매수	140,000원	• 2026년도엔 높은 이익 성장, DPS 다시 큰 폭 증가 전환 예상
KT	매수	76,000원	• 2026년에도 본사 이익 성장 전망, 부동산 자회사 이익 개선 예상
LGU+	매수	20,000원	• 2026년 높은 연결 영업이익의 성장 전망, 낮은 PBR/PER

주: 1) 종목 투자 등급은 1. 매수, 2. 중립, 3. 비중축소, 2) 투자이견은 향후 12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도표 34. 5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순위	종목명	주가(4/24)	3개월 예상 주가 밴드	P/E	P/B	평가 사유
1	SKT	100,000원	90,000~120,000원	18.6	1.6	• 올해 초기 DPS 정상화 예상, 국내 대표 양자암호+국책 AI 수혜주
2	LGU+	16,600원	15,000~20,000원	8.8	0.8	• 2026년 이익 급증 전망, 2027년 주주환원 기대감 높아질 것
3	KT	61,700원	55,000~70,000원	9.7	0.8	• 1Q DPS 상승 없으면 주가 상승 폭 예상보다 적을 수도

주: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단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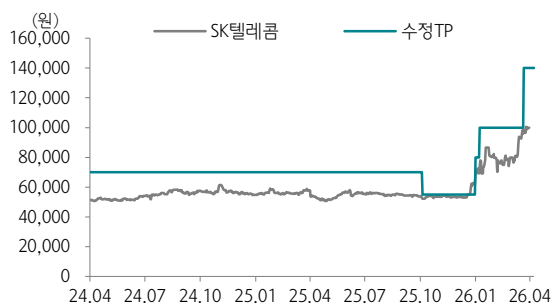
도표 35. 5월 통신업종 종목별 투자매력도 순위 변화

구분	순위(4월)	순위(3월)	순위 변화	사유
SKT	1	1	-	• 이익 성장/현금흐름 개선으로 2026년 초기 배당 정상화 전망
LGU+	2	2	-	• 2026년에도 900억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예상, 장기 밸류업 기대감 높아질 것
KT	3	3	-	•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 하지만 DPS/이익 단기 전망 어두워 탄력적 주가 상승 어려울 듯

주: 투자 매력도는 향후 1개월 기준
 자료: 하나증권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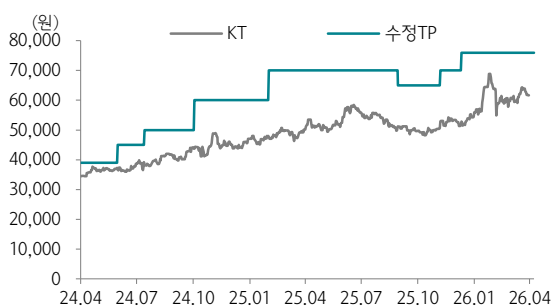
SK텔레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4.17	BUY	140,000		
26.2.3	BUY	100,000	-19.60%	-1.90%
26.1.27	BUY	80,000	-12.47%	-9.38%
25.10.31	BUY	55,000	-1.16%	14.00%
25.3.28	1년 경과		-	-
24.3.28	BUY	70,000	-21.72%	-12.14%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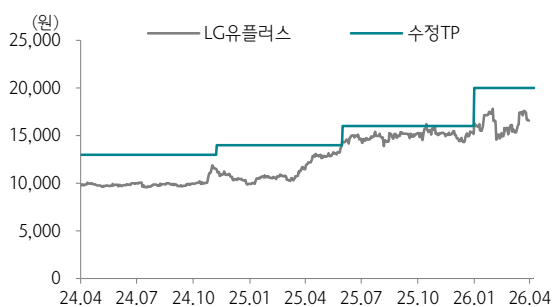
KT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6	BUY	76,000		
25.12.3	BUY	70,000	-24.70%	-22.57%
25.9.25	BUY	65,000	-23.37%	-21.23%
25.2.27	BUY	70,000	-25.61%	-16.57%
24.10.29	BUY	60,000	-24.54%	-18.33%
24.8.9	BUY	50,000	-18.52%	-11.60%
24.6.26	Neutral	45,000	-17.00%	-11.44%
24.3.28	Neutral	39,000	-7.79%	-3.33%

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LG유플러스



날짜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6.1.27	BUY	20,000		
25.6.27	BUY	16,000	-6.38%	1.31%
24.12.4	BUY	14,000	-19.13%	2.14%
24.11.26	BUY	13,000	-10.26%	-8.46%
24.3.28	Neutral	13,000	-24.06%	-13.5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6년 4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홍식)는 2026년 4월 28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 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

- **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 **산업의 분류**

-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6.74%	3.26%	0.00%	100%

* 기준일: 2026년 04월 25일